

大邱의 貧民地域 形成過程과 空間分布의 特性

배 속 회*

우리나라 대도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빈민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도시내에서 어떻게 공간 이동을 하였는가를 알기 위하여 대구를 사례로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구의 빈민형성은 해방 및 6·25동란을 겪으면서 그 수가 증대되어 1차적으로 도심가까이에 빈민지역을 형성하였고 그 후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주변지역의 무단점거에 의한 2차적 빈민지역이 형성되었다.
- 2) 최근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환경이 개선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되었거나 혹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립되어 저소득층은 그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도시근교의 영구 및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대규모로 집단화하여 거주지의 수평적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요어: 빈민, 빈민지역, 도시재개발, 환경개선사업, 근대화론, 종속론, 공식·비공식 부문론

1. 서 언

자본주의의 발전은 지역간 및 주민간의 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 결과 공간적으로는 저발전 국가나 낙후지역의 문제가, 사회적으로는 빈곤이나 빈민의 문제가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큰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성장 위주의 후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발전의 그늘”로 인식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수도 있었으나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는 금일의 한국에서는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차원 즉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노출시킨다는 이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등한했고 학문적 연구도 활기를 띄우지 못하여 연구성과가 매우 적었으며 더구나 빈민의 공간행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공백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행정당국의 빈민에 대한 통제가 미비하고 마련된 통계조차 그 상당부분이 낡았거나 정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외비라하여 외부인에게는 공개를

꺼려왔다는 것 등이 빈민연구가 부진한 이유이다.

비록 선행연구가 제한적이긴 하나 이들의 연구는, 한국의 빈민은 다른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급적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계급간의 갈등 관계도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한국의 경우 빈민층과 중간층간의 수직적 교류가 부단히 일어나고 있어 빈곤의 세습화나 빈민문화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빈민은 그 공간행태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와의 보편성과 아울러 한국적 특수성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 이것은 전환기적 한국 사회의 공간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점에서 본 연구는 대구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빈민지역의 형성과정과 공간분포의 특성을 구명함으로써 한국에 있어서 빈민공간의 사회적 생산과정과 빈민지역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또 이러한 빈민의 공간적 특성이 빈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경북대 강사.

II. 연구방법 및 자료

도시화에 따른 도시빈민의 빈곤상태나 빈곤계층의 형성을 설명해주는 틀에는 근대화론, 공식비공식부문론, 종속론, 생산양식론 등이 있으며 이들 각이론들은 어떤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설명이 불가능하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빈민의 형성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고찰한 경험적 연구는 다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빈민지역 형성과정을 역사적 시기별로 구분하여 형성과정을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수성과 근대화론의 틀로 설명하고 현재의 분포특성을 고찰하였다.

근대화는 사회의 제도, 가치 및 욕구를 변화시켜 낡고 전통적인 것을 해체하며 새로운 사회생활의 유형과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도시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적 행동유형과 생활양식은 농민들의 도시로의 이주를 야기시켰으며 도시는 근대화의 전위지역으로 경제성장의 촉매작용을 하며 근대화의 효과를 점차적으로 파급시켰다. 인구집중에 의한 과잉도시화는 치열한 경쟁을 낳고 이는 기술혁신을 유발하여 제조업의 발전을 유도해 고용의 기회를 창출한다. 그러나 이주 농민은 공식부문에 흡수되지 못하고 비공식부문에 일단 흡수되었다가 근대화과정이 진전되어 도시경제의 성장으로 소득이 증대되면 공식부문으로 전향되기도 하며 결국 도시체계속에 동화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를 연구대상지역으로하여 빈민의 형성과정을 일제통치기, 해방 및 6·25동란을 포함한 혼란기, 1960년이후의 경제개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총인구에 대한 빈민의 비율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각 시기별로 공통된 빈민의 자료가 없었으므로 일제통치기에는 토막(土幕) 및 불량주택의 수와 이들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혼란기에는 구호대상자수를, 경제개발초기에는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를 빈민인구로 간주하였으며 빈민지역의 분포특성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빈민으로 잡아 각 동별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III. 빈민지역의 형성과정

1. 일제 통치기

이 시기의 대구의 인구증가를 보면 (표 1)과 같이 1925년 대구부의 인구증가는 73.1%나 된다. 이것은 일제 초기의 식민지 농업 정책에 의한 밀어내기식 이농에 의한 것이며 결국 농민의 빈민화가 도시의 인구증가를 가져왔다. 1926년 경북의 貧農 비율이 7.4%나 된 것으로도 그 당시의 빈민화 정도를 알 수 있다. 1940년 일제말기의 인구증가는 농가에 축적된 춘궁민, 결인 등이 도시로 계속 이주할 결과라 할 수 있다.

1940년 대구부의 토막 및 불량주택수는 159호, 1,343호로 총 1,502호였으며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93명, 4,496명으로 총 4,989명이었다. 이 숫자는 전국 총 불량주택 및 토막호수의 6.6%, 이들 거주 지역 총 인구의 4.9%를 차지하였으며 그 당시 대구 인구의 2.8%에 해당된다. 이들은 해방과 더불어 도시빈민으로 전락하여 사회 문제화 되었으며 성곽 밖의 남부, 그리고 성곽밖의 덕산동, 남산동에서 서남부의 구릉을 따라 북상하여 달성, 내당, 비산동에 산재하여 거주하게 되었다.¹⁾ 결국 이 시기의 빈민은 산업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처럼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식민지배에 의한 것으로 역사적 특수성에 의한 빈민의 발생

표 1. 대구의 인구증가(1910-1960)

연도	인구(명)	인구증가(%)
1910	31,000	—
1915	33,000	—
1920	44,000	—
1925	72,000	73.1%
1930	93,000	21.9%
1935	107,000	15.1%
1940	178,000	66.6%
1944	206,000	15.5%
1949	313,000	51.6%
1955	488,000	55.9%
1960	678,000	38.7%

자료: 홍경희, 『한국도시연구』, 1979, PP.1-67.

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빈민계층의 발생의 근간이 되었다.

2. 혼란기

해방과 더불어 해외의 귀환동포 및 남하 피난민으로 대구시의 인구증가는 1944-1955년 사이 무려 2배나 증가되었다. 1947년까지 남한에 들어온 총 귀환동포는 약 100만인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 29.6%가 남한 15개 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귀환자가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은 대도시이며, 5% 이상을 부산(8.8%), 서울(6.7%), 대구(5.3%)가 다음은 마산(2%), 대전(1.3%)이며 기타 도시가 1% 이하를 수용하였다.²⁾ 여기에다 6·25 동란은 더 한층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다. 해방과 전쟁으로 각종 제조업의 생산기능이 마비되었고 낱알이 증가하는 실업자의 수는 해외로부터 돌아오는 戰災民과 겹쳐 더욱 증가했고 전염병의 만연과 각종 재해로 인한 구호대상자는 격증하고 식량난은 극도에 달했다. 각종 사회범죄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일제의 수탈과 악덕지주에게 시달리던 가난한 농민들은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집중하여 도시인구는 급증하고 그들은 빈민화해 갔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에 정착한 이들은 적당한 직업이나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참혹했던 식민생활 및 전쟁의 참상만을 간직한 채 술한 유골이 문헌 공동묘지, 하천변, 산비탈과 같은 도시주변의 공지에 천막과 가마니로 거처를 마련하고 생명을 연명하며 소위 해방촌이라는 불량 빈민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다.³⁾ 지금도 대구에는 대명, 침산, 신암, 고성동 등에 4-8평의 6·25 피난민 정착촌이 남아있다. 이러한 빈민지역에 거주하는 빈민의 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다만 구호대상자들이 통계로 잡힐뿐이다. 그나마 통계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당시 구호대상자수는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이나 1947-1952년 사이엔 그 당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더 많은 구호대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회가 혼란하여 정부당국의 조사 미비에 의한 감소가 아닌가 한다. 1940년의 1가옥당 5인 거주에서 1955-1966년 사이 1가옥당

표 2. 대구의 구호 대상자 현황⁴⁾

연도	총인구	구호대상자수	비율(%)
1947	약30만	78,218	26.1
1952	406,966	65,746	16.2
1957	609,316	78,938	13.0
1963	761,956	66,835	8.7
1968	961,657	75,137	7.6

자료: 1947, 1952년도는 영남일보사, 『경북연감』, 1948, 1953.
1957년은 대구일보사, 『경북종합연감』, 1958.
1963, 1968년은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1964, 1969.

8인 거주는 상황만 보더라도 그 당시 빈민의 수는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들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빈민발생도 근대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빈민의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3. 경제개발기

해방 후 급속도의 인구 도시 집중으로 1960년의 도시 거주자는 37%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증가에 따른 만한 경제력의 확장도, 도시계획도 없이 기형적으로 진행되어 온 도시화는 도시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경제, 사회, 주택, 교통, 상하수도, 문화시설, 공중 위생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 중 도시의 경제적 빈곤 및 도시 시설의 빈곤은 가장 두드러진다. 당시 대구시의 인구 증가를 보면 (표 3)과 같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던 인구가 그 이후로는 조금씩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가구당 인구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는데 가장 기본문제는 주택이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택의 문제가 심각했다. 대구시의 주택 보급율을 연도별로 서울, 전국과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이 매우 낮은 편이며 대구의 주택부족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1991년말 현재 대구시의 주택보급률은 64.7%로서 1960년의 66.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3. 대구의 인구증가(1955-1985)

연도	인구	인구증가율(%)	가구	가구당 인구
1955	457,331	47.97	80,695	5.7
1960	676,692	19.91	121,275	5.6
1965	811,406	31.08	151,672	5.3
1970	1,063,553	23.24	217,701	5.0
1975	1,310,768	18.86	276,128	4.6
1980	1,604,934	22.17	362,629	4.6
1985	2,029,853	15.07	501,724	4.6

자료: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월보』, 1989.7, P.5.

표 4. 대구의 주택 보급율

연도	전국	도시	대구	부산	서울
1960	84.2	68.2	66.4	68.5	61.8
1970	75.8	58.8	50.6	58.7	56.7
1980	71.2	56.6	51.3	52.7	56.1
1985	69.9	54.1	50.5	52.1	51.3

자료: 대구시, 『대구시 통계연보』, 1986.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60, 1970, 1980, 1985.

그러나 이는 인구 및 가구의 증가로 1960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주택보급률이 1981년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경기침체, 투기억제 등으로 더욱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6공화국 출범이후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대구시도 1988년부터 신규주택건설로 인해 주택보급률이 계속 향상된 결과이다.

또한 대구시의 불량주택비율을 전국 10대 도시와 비교해 보면 (표 5)와 같다. 대구시는 주택보급율은 낮은 편이지만 불량주택의 비율은 높지 않아 0.8%에 지나지 않는다. 1960년대에는 목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던 불량주택비율이 점차 낮아져서 현재는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무허가 주택의 발생이 억제 당하는 한편 1970-1980년대에 건설된 대규모의 아파트 및 신규주택의 증대에 의한 상대적 비율의 감소로도 생각되나 불량주택의 기준 및 통계상의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량주택의 발생연도를 보면, 건축법⁵⁾ 제정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 주택군이 18개 지구 2,448동(45.9%)으로 약 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는 그 이후에 발생한 법적으로 불법적인 주택들이다.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법이 제정⁶⁾된 이후 1970년대에 와서 도시문제와 관련된 법규가 보완됨으로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무허가' 건물로 남게 되어 무허가 주택지역(squatter area)으로 지정된 것이다.⁷⁾ 이러한 집단 무허가 주택 지역에는 도시의 가장 저소득 계층이 주로 거주하여 빈민지역을 이루었다. 대구시의 빈민지역도 근원적 발생은 앞에서 밝힌 두개의 큰 사회적 변동에 그 원인이 있으나 그 후에는 도시화 및 근대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지난 30년간 공업화, 도시화로 발전된 도시의 생산인자의 집적은 농촌에서 실업 및 잠재 실업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가난한 농민이었기에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방세가 싼 빈민지역에 세들어 살게 되거나 또 집을 사서 생활함으로써 이 지역의 2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1962년 이후에 대구시의 서구, 남구, 수성구에, 또 1970년대 이후에 달서구에 이러한 성격의 새로운 빈민지역이 발생하였다.

표 5. 전국 주요도시의 불량주택비율과 주택보급율

도시	불량주택비율(%)					주택보급율(%)
	1967	1971	1976	1980	1984	1984
서울	5.6	26.9	16.6	15.5	10.7	59.2
부산	4.9	19.5	10.2	15.9	4.3	55.9
대구	27.7	12.3	1.2	2.6	0.8	56.9
인천	15.2	11.5	1.1	21.6	11.4	63.9
광주	17.6	1.6	3.7	0.3	3.5	58.5
대전	13.4	6.6	13.2	4.6	13.4	63.5
전주	1.3	6.1	2.2	3.1	11.8	65.8
마산	9.7	14.8	8.2	6.5	4.8	52.3
목포	43.2	1.8	11.5	4.5	2.1	64.8
수원	13.9	10.1	7.0	3.7	1.9	67.8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69, 1972, 1976, 1981, 1985.

IV. 공간분포의 특성

1. 貧民의 分布

貧民地域을 확인하기 위한 研究 단위지역으로서는 (표 6), (도 1)과 같이 대구시의 136개 行政洞을 이용하였다. 이 중에는 중구 19개동, 동구 25개동, 서구 20개동, 남구 16개동, 북구 24개동, 수성구 18개동 달서구 14개동이 각각 분포하고 있다. 가 洞은 그 크기나 인구의 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洞別 比較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資料收集의 경우 현실적으로 더 좋은 단위지역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洞別 資料를 기초로 하였다.

大邱의 경우 貧民의 분포가 都心과의 거리와 관계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즉 각 동을 1/3만의 地圖상에서 都心으로부터 1km 미만, 1~2km, 2~3km, 3~5km, 5km 이상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都心으로부터 距離에 따른 洞別 分布를 보면 (표-7)과 같다.

- (1) 都心 1km권 내에는 동인 1.2동을 비롯한 8개동이 해당된다. 이 지역에는 대구인구의 2.9%인 64,51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貧民의 수는 2,204명으로서 전체 지역인구의 약 3.4%에 해당한다.

- (2) 1~2km 이내지역에는 동인 3동을 비롯한 20개 동이 해당되며 총인구의 10.2%인 228,375명이 거주하고 있다. 본 지역의 貧民의 수는 지역인구의 4.7%인 10,776명으로서 貧民의 비율이 5개 지역에서 가장 높다.
- (3) 2~3km 지역에는 신암 1동을 비롯한 28개 동에 대구 인구의 21.1%인 473,407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그 중 4.1%인 19,627명이 貧民이다.
- (4) 3~5km 내에는 신암4동을 비롯한 42개 동이 해당되며 인구는 총 인구의 43.2%인 968,120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 중 貧民은 전체 주민수의 3.4%인 32,463명으로 貧民의 비율은 都心 1km 미만 地域과 같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 (5) 외곽지인 5km 이상 지역은 불로봉무동을 비롯한 38개 동이 해당되며 총 인구의 22.6%인 504,999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 중 빈민은 18,351명으로 전체 주민의 3.6%를 점한다.

이와 같이 都心을 중심으로한 距離別 貧民의 分布는 거리에 관계없이 전 지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貧民의 비율은 1~2km 권과 2~3km 권이 각각 4.7%, 4.1%로서 상대적 우세를 보이며 특히 1~2km 권이 가장 높다.

표 6. 대구의 구별 행정동 분포

구분	동명
중구	1. 동인1.2 2. 동인3 3. 동인4 4. 삼덕1.2 5. 삼덕3 6. 봉산 7. 동성 8. 서성 9. 남성 10. 북성 11. 달성 12. 대신1 13. 대신1 14. 남산1 15. 남산2 16. 남산3 17. 남산4 18. 대봉1 19. 대봉2
동구	20. 신암1 21. 신암2 22. 신암3 23. 신암4 24. 신천1 25. 신천2 26. 신천3 27. 신천4 28. 효목1 29. 효목2 30. 평광 31. 불로봉무 32. 도동 33. 지저 34. 입석 35. 검사 36. 방촌 37. 둔산 38. 신평 39. 안심1 40. 안심2 41. 안심3 42. 안심4 43. 공산1 44. 공산2
서구	45. 내당1 46. 내당2 47. 내당3 48. 내당4 49. 비산1 50 비산2 51. 비산3 52. 비산4 53. 비산5 54. 비산6 55. 비산7 56. 평리1 57. 평리2 58. 평리3 59. 평리4 60. 평리5 61. 상이 62. 중리 63. 원대1.2 64. 원대3
남구	65. 이천1 66. 이천2 67. 봉덕1 68. 봉덕2 69. 봉덕3 70. 대명1 71. 대명2 72. 대명3 73. 대명4 74. 대명5 75. 대명6 77. 대명8 78. 대명9 79. 대명10 80. 대명11
북구	81. 고성1 82. 칠성1 83. 칠성2가1 84. 칠성2가2 85. 침산1 86. 침산2 87. 침산3 88. 노원1.2 89. 노원3가1 90. 노원3가2 91. 산격1 92. 산격2 93. 산격3 94. 복현 95. 대현1 96. 대현2 97. 대현3 98. 검단 99. 무태 100. 조야 101. 노곡 102. 칠곡1 103. 칠곡2 104. 칠곡3
수성구	105. 범어1 106. 범어2 107. 범어3 108. 범어4 109. 만촌1 110. 만촌2 111. 수성1 112. 수성2.3 113. 수성4 114. 황금 115. 중동 116. 상동 117. 파동 118. 둔산 119. 지산 120. 범물 121. 고산1 122. 고산2
달서구	123. 성당1 124. 성당2 125. 두류1 126. 두류2 127. 두류3 128. 성서1 129. 성서2 130. 성서3 131. 본리 132. 월배1 133. 월배2 134. 월배3 135. 송현1 136. 송현2

* 자료: 대구시, 1990.

1989년 대구시에서 책정한 대구시의 생활보호 대상자수는 (표 8)과 같다. 대구시 인구의 6.1%인 135,801명과 34,994세대로 그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들 중 약 4.9%인 6,645명은 15개 저소득 집단지역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36개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일반주거지역에 산재하여 있다. 구별로는 중구, 남구가 가장 비율이 높으며 수성구가 가장 낮다. 그러나 빈곤지역은 가난하지 않은 가족을 포함하고 있고 빈곤지역으로 인정받지 않은 지역에서의 수많은 빈곤자들을 무시하고 있다.⁸⁾

대구시 각 동별 貧民의 분포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1,000명 이상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신암4, 비산2·4, 두류2, 평리2, 대명9, 복현동의 8개 동으로 대구 인구의 9.2%, 207,071명이 거주하며 그 중 貧民은 11,664명, 5.6%로 貧民의 비율이 가장 높다. 700~1,000명의 貧民이 분포하는 33개 동은 남산4, 신암1, 신천1·

2·3, 효목1, 방촌, 내당3, 평리1, 중리, 이천2, 봉덕1·2·3, 대명3·4·5·7·8·11, 고성, 칠성2가1, 산격1, 범어1·3, 수성1·4, 만촌2, 중동, 상동, 성당1, 두류1, 성서2동으로 대구인구의 32%인 715,548명이 거주하며 貧民은 29,047명, 비율은 4.1%로 높다. 또 500~700명이 분포하는 동은 가장 많아 39개 동으로 남산2, 대봉1, 신암2, 불로봉무, 내당1·2, 비산3, 평리3·4·5, 원대3, 이천1, 침산1·2·3, 노원1·2, 노원3, 산격3, 대현2·3, 칠곡, 범어2·4, 만촌1, 황금, 파동, 고산, 성당2, 두류3, 성서3, 월배, 송현동이다. 732,674명의 인구와 24,521명의 貧民이 거주하며 그 비율은 각각 32.7%, 3.3%로 貧民의 비율은 낮다. 300~500명이 분포하는 대신2, 남산1, 3, 대봉2, 효목2, 안심1·4, 공산1, 비산5·6·7, 상이, 대명1·2·6·10, 칠성2가2, 무태, 수성2·3, 지산, 동인3, 동인4, 삼덕3, 달성, 지저,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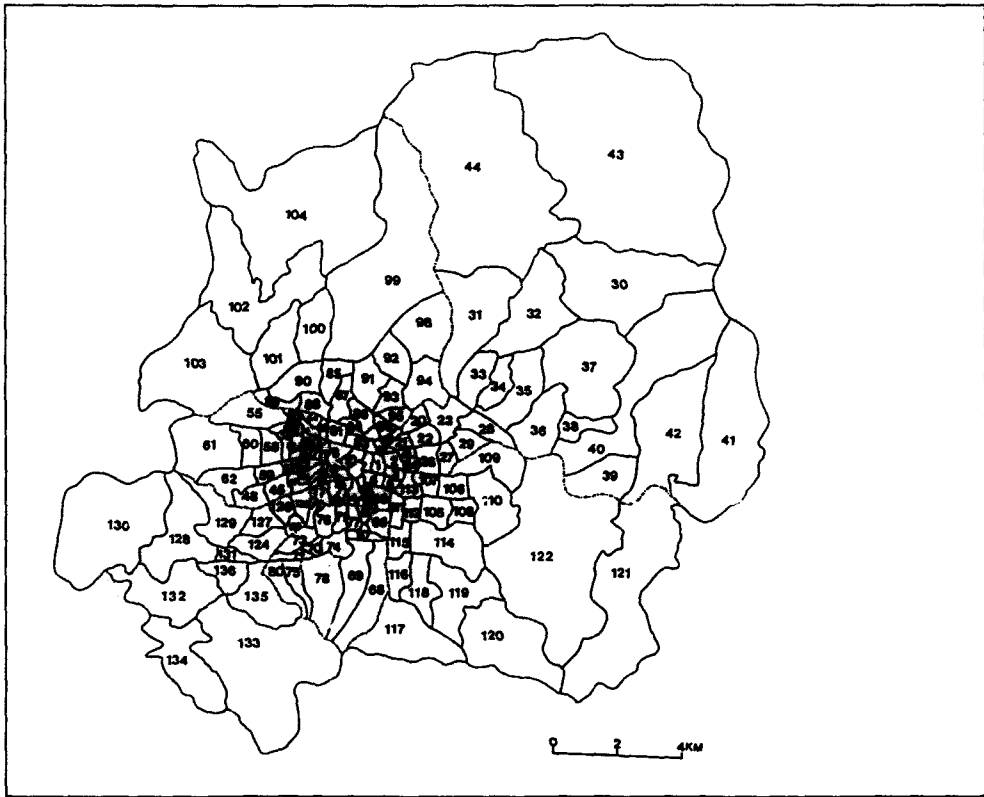


그림 1. 대구시 행정동의 분포

사, 안심2, 공산2, 원대1·2, 칠성1, 성서1의 31개동에는 370,692명의 인구나 12,721명의 貧民이 거주하며 이는 대구인구의 17%이며 貧民의 비율은 3.4%로 조금 낮다. 貧民의 수가 가장 적게 분포하는 300명 미만 地域은 동인1·2, 삼덕1,2, 봉산, 동성, 서성, 남성, 북성, 대신1, 신천4, 내당4, 노원3가2, 산격2, 대현1, 평광, 도동, 입석, 둔산, 신평, 안심3, 검단, 조야, 노곡, 두산, 범물, 본리의 25개 동으로 대구인구의 9.1%, 204,433명의 인구나 5,684명의 貧民이 거주하며 貧民의 비율은 가장 낮아 2.7%이다.

전체 주민에 대한 빈민의 비율을 洞別로 보면 (그림 3)과 같다. 첫째 洞 人口의 5% 이상인 貧民地域을 보면 신천2동을 비롯한 41개 洞에 2.1.4%인 447,941명이 거주하며, 그 중 29,119명이 貧民으로 그 비율은 6.1%나 된다. 신천2, 대신2, 비산1, 평리2, 대명3, 칠성1洞은 都心周邊에 위치하며 나머지 동은 5km 밖의 주

변지역이다. 빈곤지역은 주로 都心周邊에 입지하나 郊外地域에도 있다는 뉴욕의 先行研究와도 일치한다.⁹⁾ 그러나 周邊地域은 貧民의 비율은 높으나 一定 規模 이상의 貧民地域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둘째 貧民의 비율이 3~5%인 지역은 삼덕 3동을 비롯한 60개 洞으로서 대구인구의 41.6%에 해당하는 932,714명이 분포하며, 지역인구의 4.0%인 36,936명의 貧民이 거주하고 있다. 셋째 貧民의 비율이 가장 낮은 3%미만인 지역은 삼덕1·2동을 비롯한 35개 洞으로서 都心 商街地域과 신평 주택지역이다. 대구인구의 37.0%를 점하며 빈민수는 17,366인으로 지역인구의 2.1%를 점하고 있다.

5년 후인 1994년 현재 대구시의 경우 17,562가가와 53,613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대구시 전인구의 2.3%가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보호대상자는 4,150가구 5,990명, 시설보호대상자는 51개 시설에 5,900

大邱의 貧民地域 形成過程과 空間分布의 特性

표 7. 都心에서의 距離別, 洞別 貧民의 分布

도심에서의 거리	동수	동명	인구수	貧民수
1km 미만	8	동인1·2 삼덕1·2 봉산 동성 북성 남산1 남산2	64,517 (2.9%)	2,204 (3.4%)
1~2km	20	동인3 동인4 삼덕3 서성 달성 대신1 대신2 대신3 남산4 대 봉2 신천1 신천2 내당2 대명2 대명8 고성 칠성1 칠성2가1 칠성2가2	228,375 (10.2%)	10,776 (4.7%)
2~3km	28	신암1 신암2 신암3 신천3 내당3 내당4 비산2 비산3 비산4 원대1·2 원대3 이천1 이천2 봉덕1 대명3 대명5 대명7 침산 2 침산3 대현1 대현2 대현3 수성1 수성2·3 수성4 중동 비 산6 두류1	473,407 (21.1%)	19,627 (4.1%)
3~5km	42	신암4 신천4 효목1 성당1 상당2 내당1 비산1 비산5 비산7 평리1 평리2 평리3 평리4 평리5 봉덕2 봉덕3 대명1 대명4 대명6 대명9 대명10 대명11 침산1 노원1·2 노원3가1 노원 3가2 산격1 산격2 산격3 복현 범어1 범어2 범어3 범어4 만 촌1 만촌2 황금 상동 두산 두류2 두류3	968,120 (43.2%)	32,463 (3.4%)
5km 이상	38	불로봉무 지저 입석 검사 방촌 상이 중리 검단 무태 조야 노 곡 파동 지산 평광 도동 둔산 신평 범물 고산1 고산2 안심1 안심2 안심3 안심4 공산1 공산2 성서1 성서2 성서3 월배1 월배2 월배3 칠곡1 칠곡2 칠곡3 본리 송현1 송현1	504,999 (22.6%)	18,351 (3.6%)

*자료: 1/3만 대구직할시지도, 유신지도문화사, 1983.
대구시, 1988.

표 8. 대구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구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보조
	세대수	인구	비율	인구	인구	인구
중 구	3,558	13,522	7.7%	639	7,352	5,531
동 구	5,273	20,233	5.9	1,245	10,925	8,063
서 구	5,811	22,979	5.5	708	12,562	9,709
남 구	5,635	21,818	7.7	824	10,716	10,278
북 구	5,409	21,023	6.1	847	10,765	9,411
수성구	4,720	18,227	5.4	833	9,478	7,916
달서구	4,588	17,999	5.5	617	9,694	7,688
계	34,994	135,801	6.1	5,713	71,492	58,596

*자료: 대구시 사회과, 1990.

명, 자활보호대상자는 13,412 가구 41,723명이 자의 경우 1,779가구 5,393명이 증가한 것이다.
다. 이는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 1993년에 비해
431가구 588명이 증가한 것이며, 자활보호대상

2. 貧民地域의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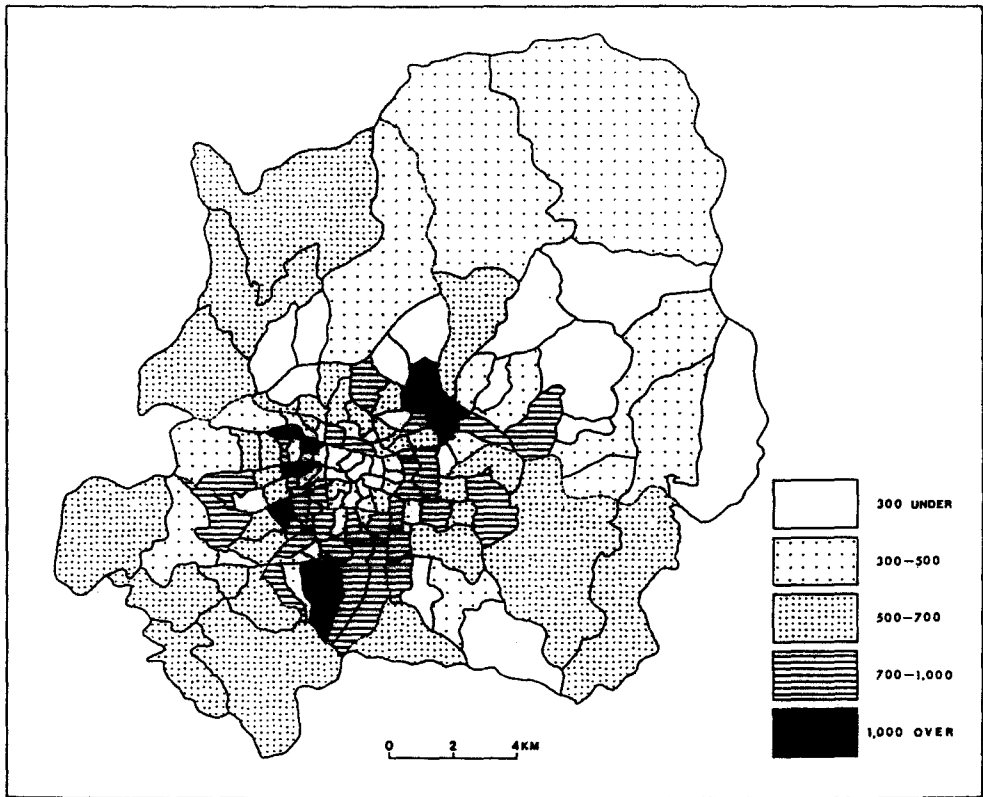


그림 2. 대구의 동별 빈민분포

貧民地域은 低所得層(빈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적으로는 전체주민의 15~20 이상이 零細民일 경우를 말한다. 대다수의 貧民地域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생활이 향상되므로서 이들 지역에 집단거주하던 빈민들은 이 지역을 떠나 분산거주하게 되었고, 자력성장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는 집단화 형태를 벗어나 一般住居地域 형태로 크게 변모해 가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1990년에 (표 9), (그림 4)와 같이 貧民地域으로 볼 수 있는 저소득층의 집단거주지역이 중구 남산동, 6·25 피난민촌을 비롯하여 15개소가 있었고 準貧民地域으로 볼 수 있는 住居環境 改善地區도 36개소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재개발사업에 의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영구임대 혹은 임대 아파트가 건립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저소득 주민의 밀집지역을 이루

고 있다. 저소득 집단지역의 변화는 (표 10), (그림 5)와 같다.

신암 5동 새마을촌은 저소득층의 비율이 4.2%로 낮아져서 곧 집단빈민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주민들은 투표에 의해 아파트 공간보다는 택지개발조성을 원하며 계속적으로 택지개발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원부지촌도 현재(1994.10) 영세민 2세대(2명)만이 남아 있으며 공원부지촌의 영세민들의 약 50%는 월성지구의 영구임대 아파트로 입주했으며 나머지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분산 이주하였다. 현재 빈민촌의 개발은 공원부지촌내에 놀이단지를 공사중에 있다. 대명 8동의 탐동네도 저소득층의 비율이 2.0%로 가장 낮으며 일반 주거지역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변화하고 있다. 남산4동의 까치아파트는 1992년 7월에 입주해서 101, 102동은 장기임대아파트로 5년 후 분양할 예정이며 약 15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103동만 영구임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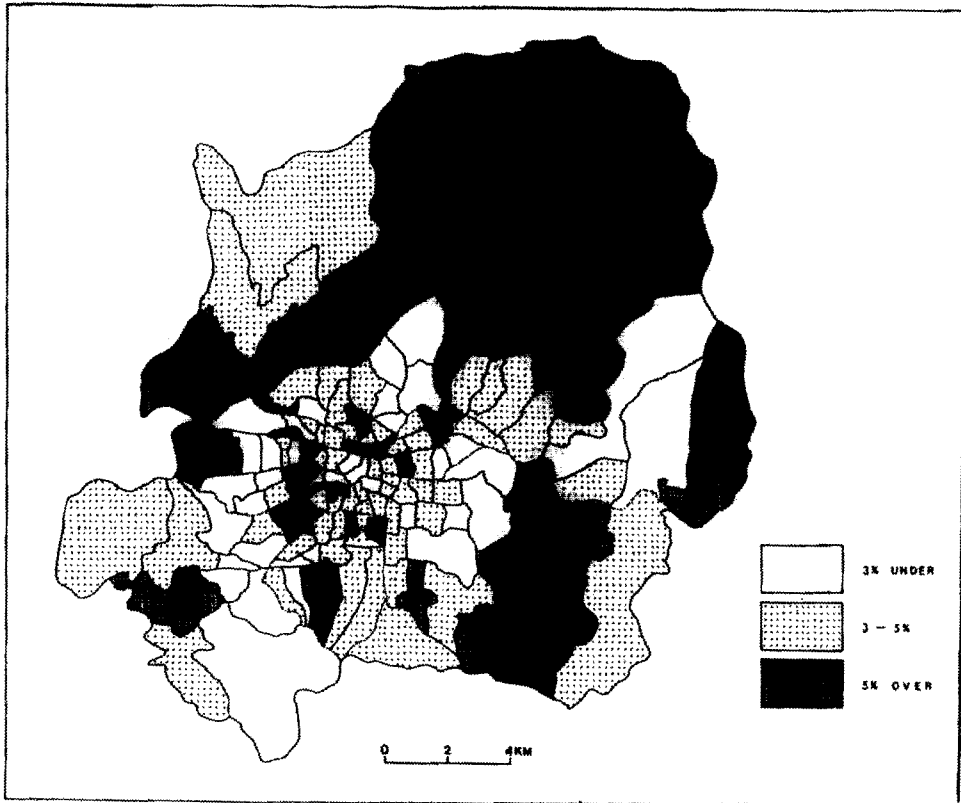


그림 3. 대구의 동별 빈민비율 분포

표 9. 대구의 저소득 집단지역 현황

구	동명	거주지명	총인구 (A)	총세대	빈민집단지주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세대	인원(B)	B/A	
중구 동구	남산4동	6·25피난민촌	2,450	550	241	936	38.2%	4개지구 4개지구
	신암2동	감나무촌	1,946	472	92	357	18.3	
	신암4동	새마을촌	2,915	711	217	855	29.3	
	신천1동	하상촌	2,336	610	63	238	10.2	
	효목1동	이화촌	927	228	59	228	24.6	
서구	—	—	—	—	—	—	14개지구	
남구	이천2동	이재민촌	1,962	538	93	304	15.5	5개지구
	대명3동	야시골	1,763	561	79	260	14.7	
	대명5동	비행장촌	1,472	411	152	594	40.4	
	대명7동	종지골	5,209	1,451	189	732	14.1	
	대명8동	탑동네	2,833	836	110	398	13.8	
북구	북현동	피난민촌	1,058	257	63	329	31.1	4개지구
	고성동	난민촌	1,118	275	49	148	13.2	
	대현3동	감나무촌	3,140	832	107	414	13.2	
수성구	만촌2동	새마을촌	425	108	34	125	29.4	3개지구
달서구	두류2동	공원부지촌	1,274	272	150	727	57.1	2개지구
계	15개지역		30,828	8,112	1,698	6,645	20.1	36개지구

자료: 대구시 사회과,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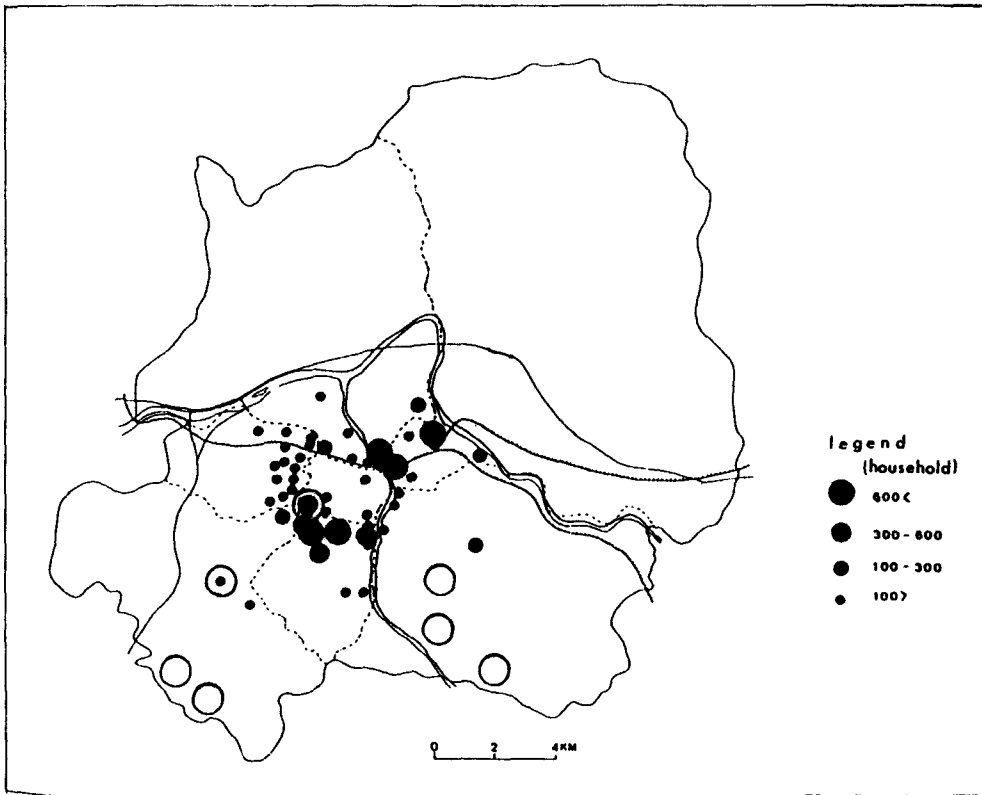


그림 4. 대구시 빈민지역의 분포(1990)

파트로 약 150세대가 입주해 있다. 범물 2, 4지구는 대구와 경북의 전지역에서 이주해 와서 1992년에 입주했으며 전체의 41.4%가 저소득 가구들이다. 또 월성지구는 1991년에 대구시 전역에서 입주했으며 계약기간은 2-5년으로 재계약에 의해 영구임대되는 아파트이다. 전입주자의 반 이상이 저소득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도심지에 접근해 있던 빈민지역들이 5km 밖의 외곽지 아파트단지로 집단이주한 셈이된다. 이는 임대아파트 입지가 이들의 생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급자 입장에서 주어지는 장소를 선택한 결과이다.¹⁰⁾

16개 지역의 평균 저소득층의 비율은 27.5% (표 12)로 1989년의 20.1% (표 11) 보다 높아졌으며 특히 산격1동의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65.8%), 신암2동의 강남아파트(72.3%), 본동지구 아파트단지가 65%로 매우 높으며 황금지구, 월성1, 월성2지구, 범물지구 등 주변부의 아

파트 단지도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중구 남산4동의 까치 아파트는 그 비율이 13.6%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높은 지가에 의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저소득주민들이 거주하기에는 주거비의 부담이 매우 높아 일반입주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의 일반 주거지역의 저소득 주민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졌다.

이상에서 검토한 빈민지역의 분포특성은 도심에서 2-4km와 5km 이상 근교지역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도심에 근접하여 나타나는 이유는 빈민들은 거리에 민감하여 도시 내부에 위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교통수단, 교통비용의 여건이 근거리 이동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값싼 주거공간의 제공, 법적 사회적 통제로부터의 해방, 직장이 집중된 도심부와의 접근 등의 이점 때문이다. 그리고 5km 밖의 빈민은 농촌-도시 이주자들로서 근교에서 농업을 하면서 도시화에 적응을 하기 위하여 값이 싼 도시근교에 거주하

표 10. 대구의 저소득 집단지역 현황

	행정구역		총인구	세대	생보자		생보자/총인구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중구	남산4동	까치APT	2,932	755	398	85	13.6
동구	신암5동	새마을촌	1,529	424	64	26	4.2
	신천1동	하상촌	1,816	571	78	31	4.3
	효목1동	이화촌	915	233	29	14	3.2
	신암2동	강남APT	484,103	350	80	72.3	
남구	대명5동	비행장촌	2,754	873	117	47	4.2
	대명8동	탐동네	2,793	891	55	24	2.0
	대명3동	야시골	1,256	380	37	15	3.0
북구	산격1동	영구임대	7,121	1,859	4,684	1,239	65.8
	북현1동	피난민촌	1,028	308	56	25	5.4
	대현3동	감나무밭	2,597	793	53	27	2.0
수성구	황금1동	황금지구	3,099	978	1,564	522	53.4
	지산1동	지산지구	2,341	574	82	29	3.5
	범물동	범물지구	9,168	2,646	379	1,102	41.4
달서구	송현2동	본동지구	4,026	1,246	2,615	803	65.0
	월배5동	월성1지구	10,351	2,364	5,159	1,248	49.8
		월성2지구	5,505	1,489	3,319	917	60.3
	계	16개지역	61,830	16,987	24,802	6,779	27.5

자료: 대구시 사회과, 1994.

는 형태이다. 남산4지구, 신천1지구, 탐동네는 도심 1-2km 이내에 입지하고 비산2지구는 2-3km 이내에 새마을촌, 침산1지구, 공원부지촌은 3-5km 이내에 입지하며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인 범물 2-4지구, 월성1지구는 5km 이상의 주변부에 입지한다. 이는 입주자들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는 비공식부문의 직업에 종사하며 중심상권을 근거로 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직업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영구임대아파트의 저조한 입주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제3세계에 있어서의 빈민지역은 도시내부의 CBD 근처에 인접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직장이 동비용을 최소로 해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의해 CBD근처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중상층 주거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로

가난한 경제집단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주거지역의 여과가 이루어진다.¹¹⁾

V. 결 언

이상에서 고찰한 대구의 貧民地域 形成過程과 空間分布의 特性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구의 貧民地域 형성과정을 보면 日帝統治 期에는 전국의 불량주택 및 토막호수의 6.6%가 본 지역에 있었고 大邱人口의 4.9%가 거주하고 있었다.

혼란기에는 光復과 動亂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해외 귀환동포와 피난민들이 대도시로 집중하므로써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조대상자들이 새로운 貧民으로 부각되었다. 이들은 주로 도시주변의 공지에 천막과 가마니로 거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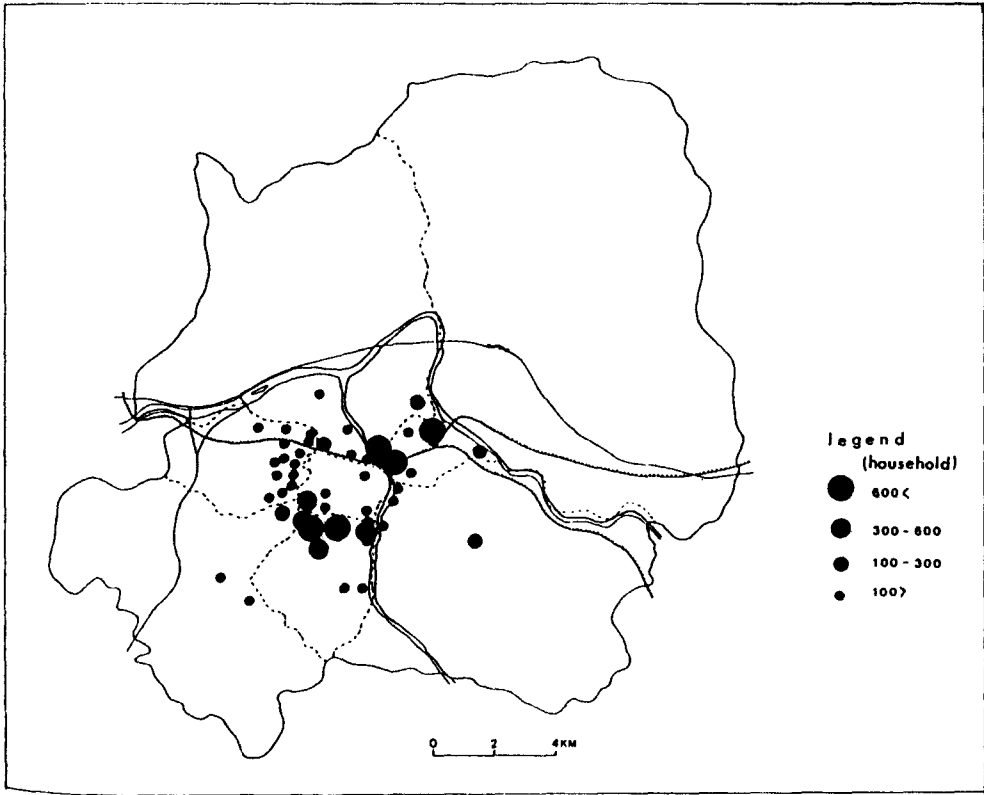


그림 5. 대구시 빈민지역의 분포(1995)

마련하고 생명을 연명하여 소위 해방촌이라는 불량주택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경제개발기에는 구호대상자 수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經濟開發에 따른 離農人口의 도시집중에 의한 貧民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들은 주로 무허가 불량주택지역에 거주하여 대규모의 빈민지역을 형성하였으며 주로 대구의 서구, 남구, 동구 등 도심 가까이에 입지하였다.

2) 공간분포의 특성을 보면 貧民의 비율은 都心 1~2km 지역내에서 가장 높고 2~3km 지역과 5km 이상의 周邊地域에서도 높게 나타난다. 都心の 貧民地域은 대부분이 撤去 移住地域이며 外廓地에는 영구임대 및 임대 아파트의 건립으로 대규모의 集團 貧民地域이 형성되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16개의 低所得層 集團 住居地域과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산재해 있어 소위 貧民地域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거환경 및 주민생활의 향상으로 집단 거주하던 零細民들이 분산거

주하거나 또는 자력성장을 하게 됨으로서, 현재는 一般住居地域 형태로 크게 변모하고 있는 한편 외곽지에는 대규모의 영세민 아파트단지가 건립되고 있다.

3) 종래의 빈민지역의 분포는 대체로 1~3km 이내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급속한 도시화에 의해 과거 도시주변의 빈민지역이 상대적으로 도심에 접근한 결과이며, 都心に 근접하므로서 交通, 求職 등의 문제와 생활편익시설의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빈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외곽지의 영세민 아파트 단지는 이들의 직업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저조한 입주율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註

- 1) 손정목, 1985, "일제하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1)", 국토계획, 통권 42호, 203.
- 2) 대한민국 통계월보, 제10표, 1947호, 72-87.
- 3) 영남신문, 1990. 6. 28.
- 4) 구호대상자 총수는 구호대상자를 전원 포함하고 있지 않음
1947년도의 공식 인구통계가 없으므로 1947년의 인구 약 30만은 1946년 8월 25일 미군정부에서 실시한 대구부의 인구 약 27만과 1949년도의 대구시 인구 313,705인을 근거로 추산한 것임.
- 5) 건축법: 1962. 1. 20, 법률 제984호로 제정.
- 6) 도시계획법: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
- 7) 배숙희, "도시 슬럼의 생태학적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2, p.8에서 1973년 대구시의 불량주택은 총 11,860동이고 30동 이상의 무허가 판자촌은 19개 지구로 총 2,306동이었다.
- 8) Henry W. Bullamore, "Three Types of Poverty in Metropolitan Indianapolis".
- 9) Henry W. Bullamore(1974), p.542
- 10) 이종열, 도시빈민의 주거실태, 대구지역빈민의 생활실태와 빈곤정책연구, 대구사회연구소, 1994, pp.59-77
- 11) Michael F. Doran and Renee A. Landis, "Origin and Persistence of An Inner-City Slum in Nassau," The Geographical Review, Vol. 70, No. 2, 1980, pp.182-193. Robert S. Alken(1981), p.173. 라틴아메리카는 이주민들이 처음에는 도시중심지역으로 이동하고 약간의 도시경험을 하고 난 후에 주변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Kuala Lumpur에서는 최근의 이주민들이 도시중심보다는 중간지역과 주변지역에 정착한다.

文 獻

- 姜大基, 1987, 현대도시론, 대우학술총서, 인문 사회과학 21, 서울: 민음사.
- 姜萬吉, 1987, 日帝時代 貧民生活史 研究, 서울: 創作社, .
- 강만길·김진균외, 1983, 한국사회연구 제1집.

- 서울: 한길사.
- 金泳模, 1982, 韓國社會階層研究, 서울: 一潮閣.
- 김영석, 1985, 도시빈민론, 아침.
- 대구시, 1989, 대구통계연보.
- 대구시, 1990, 대구통계연보.
- 대구시 동구, 1989, 동구통계연보.
- 대구시 서구, 1989, 서구통계연보.
- 대구시 남구, 1989, 남구통계연보.
- 대구시 북구, 1989, 북구통계연보.
- 대구시 중구, 1989, 중구통계연보.
- 대구시 달서구, 1989, 달서구통계연보.
- 대구시 수성구, 1989, 수성구통계연보.
- 대한주택공사, 1988,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 확대 방안 연구.
- 버트란트·르노, 노용희역, 1980,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정책, 서울: 법문사.
- 염홍철 編著, 1980, 제3세계와 종속이론, 오늘의 思想新書 13, 서울: 한길사.
- 이각범 역음, 1986, 제3세계 사회발전논쟁 - 근대화론, 종속이론의 비판과 한국, 한울총서 43, 서울: 한울.
- 이효재·허석렬(편), 1983,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오늘의 사상신서 62, 한길사.
- 조안 히긴스, 1986, 愼變重譯, 英美의 貧困政策 比較 研究, 서울: 大學出版社.
- 홍기용(편), 1986, 도시빈곤의 실태와 정책, 단국대 출판부.
- Abel-Smith, Brian and Townsend, Peter, 1965, The Poor and the Poorest, L.S.E. Occasional Paper, G. Bell and Sons, Lodon.
- Angel, A.S. et al., 1983, Land for Housing the Poor, Select Books.
- Bourne, L.S., 1981, The Geography of Housing, Edward Arnold.
- Bromley, Ray and Chris Gerry (eds.), 1979, Causal Work and Poverty in Third World Cities, New York: John Wiley.
- Bromley, Ray (ed.), 1971, The Urban Informal Sector: Critical Perspectives

on Employment and Housing Policies. London: Pergamon Press, Center for Development Studies, College of Swansea.

Ghosh, P.K., 1984, *Urban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Greenwood Press.

Perlman, J.E., 1979, *The Myth of Marginality: Urban Poverty and Politics in Rio de Janeiro*.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oberts, Bryan, 1978, *Cities of Peasants: the Political Economy of Urbanization in the Third World*. London: Edward Arnold.

Rose, H.M., 1971, *The Black Ghetto: A spatial Behavioral Perspective*. New York: MacGraw Hill.

Smith, David M., *Human Geography: A Welfare Approach*.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7.

Timberlake, M.(ed.), 1985, *Urbanization in the World Economy*. Academic Press.

Proces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Squatter Settlement in Taegu

Sook-Hee Bae*

Summary

The forming process of poverty region in Taegu and the feature of its spatial distribution which are reviewed hitherto can be summarized like this.

1) In the forming process of poverty region in Taegu, during the sovereignty of Japanese Empire petty farmers became tenantry by the colonial agricultural policy of Japanese Empire and some of those came into the city and became urban poor calss. They generally lived in poor houses or dugouts in the city, and 6.6% of poor houses and dugouts of the whole country were in Taegu and 4.9% of the population in Taegu resided there.

During the period of disorder, because of the historic accidents, such as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and Korean

War, the returnees from abroad and refugees converged into the big city so that those who need the country's relief stood out as new poor class.

They generally made their dwellings with tents and straw-bags on vacant grounds in suburbs living from hand to mouth and shaped the poor houses area, so-called "Liberated Village".

During the developing period, the number of those who need aid gradually decreased, but the problem of poor people by the city-concentration of the people who shifted from agricultural jobs by economic development came to the front. They mostly lived in squatter area forming large poor class area, and generally located near the center of Taegu consisting of West, South, East Ward.

2) Reviewing the feature of spatial distribution, the proportion of poor class

* Lecturer, Dept. of Geography, Kyungpuk National University.

are highest within 1~2km from the center of the city and also high within 2~3km from the center and suburbs. The poor class area in the center of the city are mostly cleared and removed area and in suburbs by the construction of permanently leased, and leased apartments large grouped poor class areas are forming. In Taegu, 16 low-income class group residence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ing areas are dispersed so that they came under the so-called poor class area.

But by the improvement of dwelling environment and living the poor people who lived in groups dispersed or bettered their living for themselves, so the poverty area is greatly changing into average-levelled residence area, and on the other hand, large poor people's apartment complexes are being constructed in suburbs.

3) Up to now, the distribution of poverty area could be limited its scale to generally the area within 1~3km because the poverty region which had been in suburbs relatively came near the center of the city by the rapid urbanization and poor people preferred that area because of the living convenience facilities as well as the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job-hunting being near the center of the city.

But now poor people's apartment complex is being constructed regardless of their zone of job sites, so the low proportion of occupation is pointed as a new problem.

Key Words: poor people, squatter area, urban redevelopment,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modernization theory, dependence theory, formal and informal sectors.